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는 통신시장

전환기를 맞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은 유선전화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무선통신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보이면서 전 통신서비스 시장에 특히, 무선통신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홍 원 표 한국통신프리텔(주) 기술총괄이사

'96년은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그리고 통신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던 한 해였다.

'95년도부터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을 표방하고 나선 정부의 통신시장 개방 정책의 초기 단계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통신서비스 특히, 이동전화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여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간 한 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OECD 회원국으로서 통신시장 개방에 앞서 통신선진국으로도 약하기 위한 국내 신규 통신사업자가 대거 선정되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던 해였다. 눈을 밖으로 돌리면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도 국내에 못지 않은 변화를 겪은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원(Global One)과 유니소스(UNISOURCE) 등 세계 유수의 대형 통신회사들의 전략적인 제휴가 어느때보다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는 국제경쟁은 곧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에 더하여 국경을 넘어 지구 전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경쟁하는 글로벌 경쟁전략만이 생존할 수 있는 장기전략임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중국, CIS, 동남아시아, 남미, 인도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뒤쳐져 있는 국가들이 대거 자국시장을 개방

하고 통신시장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타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을 펴며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세계 대형 통신회사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통신을 비롯한 국내의 몇몇 대기업들도 이들 시장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차원에서 좀더 체계적인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전환기를 맞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은 유선전화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무선통신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보이면서 전 통신서비스 시장에 특히 무선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무선통신과 이동전화로 대표되는 국내 무선통신 시장에는 지난 80년대 전전자 교환기의 도입으로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한 유선전화보다 큰 폭으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경쟁체제 도입이후 그 영향으로 무려 1천 2백만명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가입자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의 눈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CDMA 이동전화 서비스는 95년 9월 홍콩의 허치슨-모토롤라의 상용서비스 개시를 기점으로 국내에도 96년 1월 한국이동통신, 4월 신세기통신, 그리고 6월 미국의 에어티치사 등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성과를 올렸으며 가장 최근에는 국내의 한국이동통신

과 신세기통신의 가입자가 모두 합쳐 50만에 육박하는 본격적인 CDMA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11월은 미국의 16개 대도시에서 CDMA를 이용한 PCS가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여 CDMA기술의 확대보급을 예시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자리를 잡게 되고 또한 가입자 수의 증가세가 강하게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기업들이 통신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기업의 사활을 건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왔다. 통신서비스 사업이 무조건 큰 이윤을 보장하는 유망사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통신서비스가 한국통신의 독점체제였던 것이 국제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 통신서비스가 잇달아 과점체제로 전환되면서 이 분야에서 통신사업권을 획득한 기업들이 엄청난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은 통신서비스사업 참여 자체가 하나의 이권으로 인식되던 때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앞으로는 통신서비스 사업권 획득만으로 이 분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는 통신서비스 분야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증거다.

통신서비스시장에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동전화의 경쟁서비스인 발신전용휴대전화(CT-2) 서비스가 조만간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며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가 시작되고 이에 맞춰 사업자간 가입자 확보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개인휴대통신서비스는 주파수를 달리하는 이동전화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이동전화의 가격과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이동전화에 가입하지 않고 잠재 수요자를 향한 3개 PCS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출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아직도 기술적으로 완벽하다고 하기에는 이른 CDMA 기술이 PCS의 보급으로 좀더 안정되고 서비스의 품질도 크게 개선되리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은 비슷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동전화와 PCS의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대국민 무선통신서비스가 한차원 더 진보함으로써 대책사업으로 시작된 CDMA 기술이 국가적 차원의 결실로써 자리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주파수 공용통신이나 무선데이터통신, 위

성이동통신 등 새로운 이동통신서비스가 속속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2000년 이후 플립스 범용 개인통신 등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가 실용화될 경우 통신사업자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숨가쁘게 전개될 것은 자명하다.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의 출현으로 통신사업자간에는 가입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경쟁과 함께 가입자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 적자로 사업권을 반납하는 통신사업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통신서비스사업의 치열한 시장경쟁은 비단 무선통신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내년중 시내전화에 경쟁도입을 계기로 유선전화사업도 치열한 경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특히 통신과 방송의 융합, 기본통신시장 개방 등 유선통신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도 새로운 전환기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발전은 통신서비스사업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공중 통신망간의 근간을 이룬 전화망에 이어 케이블TV망, 초고속 통신망, 무선가입자망 등 갈수록 지능화된 통신망이 속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세계 정보통신망의 흐름이 글로벌 네트워크 세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전세계를 이어주는 위성이동통신사업이 이동전화의 국경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통신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분석가들에 따르면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통신서비스시장이 오는 2002년 음성전화 2백만, 무선호출 1백만가입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늘날 통신서비스사업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시대를 표현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시장 경쟁력을 지닌 통신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용화 할 수 있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97년 새해는 WTO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98년을 1년 앞두고 있는 해임과 동시에 21세기를 고작 3년 정도밖에 놔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적으로 지난 어느해 보다도 많은 변화를 겪을 해임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 통신사업자는 물론 신규 통신사업자 역시 누가 먼저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이며 경쟁력을 확보한 사업자만이 생존하여 세계시장에 진출적으로도 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국내에서부터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명확한 정책제시도 기대되는 바이다. ●